

대학 정원 줄이면 수 십억 인센티브 받는다

광주·전남 22곳 등 257곳 내년 5월 계획 제출해야 최대 60억 지급...감축 권고 안 따르면 지원 중단 정부 '단근·차찍' 병행...구조조정 대학도 5월 발표

학생 정원을 못 채우는 등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붕괴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구조조정과 동시에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정부는 정원을 많이 감축하는 대학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원감축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정부는 대학 미충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400억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교육 역량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분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송원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조당대, 호남대 등 일반대 13곳과 광주보건대, 목포과학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암대, 한영대 등 전문대 9곳 등 총 22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 153곳 7950억원, 전문대 104곳 402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각 대학들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일반대 1곳당 사업비 42억7000만원 꼴이다.

더불어 각 대학 총원율을 5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기준 유지총원율로 점검한다. 기준 총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총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10월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학과별 정원 조

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그중 올해의 미충원분을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수억에서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올해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된다.

올해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광주·전남의 3곳 등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총원율과 교원 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내년 5월에 지정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

하기 위해 대학기분역량진단을 통해 평가·지정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는 전남 3곳 등 총 18곳이 지정됐다.

2023학년도에 전년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재학생 총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을 지표로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입·재학생 총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 제한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광주시 북구지역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이 29일 오후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후위기대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북구 마을버스 788번 신설 남부대수영장~시화문화마을 31일부터 운행

광주시 북구의 마을버스 신규노선이 3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시화문화마을문화관까지 총 18.5km의 신규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 버스 788번이 30일 개통식을 갖고 3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또 살레시오고에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마을버스 799번은 내년 2월 운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마을버스 777번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북구는 올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2개 노선(788·799번)을 추가로 신설했다.

788번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기점)-첨단교통공원-양지초교-북부경찰서-말바우시장(서)-시화문화마을문화관(종점)까지 총 18.5km 구간이며 정류소는 47개이다.

첫차 출발 시간 오전 6시 10분, 마지막 차는 9시 30분이고 운행간격은 25분 내외로 25인승 버스가 노선에 투입되며 요금과 환승체계는 시내버스와 같다.

799번은 살레시오고(기점)-양산타운-연제주공아파트-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시청-상무역-김대중컨벤션센터역(종점)까지 총 22km 구간이며 정류소는 44개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복지 7979센터' 전문 봉사자·동행업체 모집

광주시 남구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행복한 복지 7979센터'와 함께 아름다운 봉사활동에 나설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 이웃사랑 실천에 나설 동행업체를 동시에 모집한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전문 자원봉사자 및 동행업체 모집은 내년 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고령화 및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이웃 돌봄 공동체의 틀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모집 분야는 이·미용을 비롯해 전기, 건축, 수도, 도배, 페인트, 보일러, 컴퓨터 수리 등 다양하며, 각 분야의 전문기술자 및 사업자 가운데 봉사활동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 및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자원봉사자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며, 동행업체는 남구청과 상호 협약을 맺은 뒤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게 된다.

문의는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7979)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강한 눈...내일 영하권 추위

30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서해상에서 헤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기압골이 동반돼 더욱 발달하면서 내일 낮(12시)부터 밤(오후 9시) 사이 전남 북부내륙 중심으로는 시간당 3~5cm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3~10cm 전남

남부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 대신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하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1도, 최고기온 3~6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31일에는 눈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해 첫 날인 오는 1월 1일에는 일 최저기온은 영하 8~영하 2도, 최고기온은 5~7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으니 보행자 안전사고와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월정신 빛으로 승화... '빛의 분수대' 착공

5·18민주광장의 분수대가 1980년 5월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땀을 담은 '빛의 분수대'로 새롭게 태어난다.

29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이날 5·18민주광장을 광주를 넘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빛의 분수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내년 3월 개막을 목표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빛의 분수대 조성사업'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및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1월까지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설계와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테크니컬 리허설을 거쳐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빛의 분수대'가 조성되면 낮에는 현재 분수대 물줄기를 그대로 볼 수 있고, 야간에는 특정 시간대에 작동하는 ▲매립형 키네틱 조형물 ▲초대형 워터스 크린 ▲민주광장 바다맵핑 ▲미디어아트 작품이 선보인다.

이번 사업에는 유재현 총감독을 비롯해 미디어아트리스트 진시영 작가, 김형석 작곡가, 영국 미디어아트리스트그룹 유니버설 에브리핑, 폴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및 작가 크지슈토프 보디츠크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은행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